"안다고 하나 알지 못하는 인생" (전도서 인생론 시리즈 2)

(전도서 1:12-18)

미국의 유명한 현대 소설 작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가 쓴 대표작 중의 하나인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산티아고라는 한 늙은 어부이고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84일째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 85일째 되는 날 대어 참새 치를 잡게 됩니다. 워낙 힘이 좋은 대어 참새 치라 2,3일간 놓치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 힘이 빠져 참새 치를 작살로 찌르면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시장에 이 참새 치를 고가에 팔 생각에 지친 몸이지만 보트 그물에 싣고 육지로 향해 갑니다. 그러던 도중 참새 치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인해 큰 상어 떼를 만나는 위험에 처합니다. 또 한 번 남은 힘을 다해 상어 떼와 사투를 버리며 잡은 참새 치를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육지에 닿아 그물을 보니 남은 것은 참새 치의 앙상 뼈뿐이였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인생에 결국 남게 되는 것은 허무임을 묘사하는 소설인 것입니다. 헤밍웨이라는 분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삶이었습니다. 3번씩이나 이혼을 하고 4번째 재혼한 여인과도 행복하거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외딴섬에서 병으로 앓는다고 63세에 외롭게 자살로 생애를 마칩니다. 헤밍웨이 자신도 인생의 뒷자락에서 영혼이 없이 앙상한 뼈만 남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생애를 마친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코헬렛)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 다른 인생의 허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 아래서의 지혜와 지식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가? 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12-13절)."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선물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와 선물을 통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억울해하는 많은 인생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맞고 틀린지 잘 관찰하고 재판하여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왕은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지식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담장을 훨씬 뛰어넘어 여러 나라 리더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내린 해 아래서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결국 인생 모두가 자신의 영광과 영화 그리고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일을 위해 연구하고 쌓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유의 내용들이 1장과 연결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3절). 그래서는 그는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4절)고 고백하며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과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노배들과 종들을 통해 이 땅의 그 어떤 자들보다 더 많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많이 소유하고 은과 금뿐 아니라 여러 첩들을 두었다(5-8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그렇고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결국 자신들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애썼지만 모두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경문화에서 사신 어르신들도 손에 쟁기를 잡으며 밭을 갈구며 초가집에서 기와집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산업 문화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중심이 되어 현대화 속에서 부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였습니다. 이제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권력이동'이란 책에서 말하듯 정보 지식의 첨단화가 지배하는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AI 인공 지능 시대가 열린 것을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헛되고 헛된 '하뻘'일 될 것입니다. **오직 해 아래(Under the Sun)가 아닌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모든 지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래(Under the Son) 무릎을 끓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 드릴 때 삶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산티아고 어부는 빈 그물을 놓고 허무했지만 갈릴리 어부 베드로는 빈 그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끓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듯이 우리 뉴장의 성도의 삶이 영혼 구원을 위한 지혜와 주님의 지식을 구하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2024년 표어

"한 영혼을 품어 열매 맺는 생명의 공동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8:12)

일반집회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영아부	주일 오전 12시
글로리 워십	주일 오전 10시	유아부	주일 오전 12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유치부	주일 오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초등부	주일 오전 12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시	중고등부	주일 오전 12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러브미션부	주일 오전 12시
수요중보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새나라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유 아 부	최수진 사모 (917)526-1344	1 선 교 회	김성준 목사 (617)949-1118
유 치 부		2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초 등 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손주영 전도사 (917)797-4237	4 선 교 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러 브 미 션	박명애 전도사 (718)737-1643	5,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 년 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히 스 패 닉	이효성 목사 (646)549-6043
영 어 회 중	폴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다니엘 바스넷 목사 (201)927-0220
행 정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투글들 목사 (646)467-2675
양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사역	양영란 전도사 (917)533-9511
새 가 족 부	최순성 목사(정) 박수진 전도사(부)	시니어사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심 방 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단비 기독교TV(타임워너 케이블 채널1487)/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본방송)
토요일 오전 11시(재방송)

2024년 9월 15일

설립 54주년 기념 | 말씀 사경회 연합 예배 10:00am

인도: 김학진 목사

*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	두나미스 찬양팀
* **기원** Invocation	인도자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제109번 '#(109)'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Creed'
찬송 Hymn	새208장(통513)"내 주의 나라와 "I Love Thy Kingdom, Lord"
기도 Prayer	김선신 장로 Elder. Sun Shin Kim
성경봉독 Scripture	사도행전(Acts) 2:42-47
* **봉헌** Offering	새213장(통348) "나의 생명 드리니" (1, 4절) "Take My Life, and Let It Be"
찬양 Anthem	글로리아 찬양대 "불 같은 성령" 외 1곡
설교 Preaching	**"오직 성령으로!"** "Through the Holy Spirit Alone!" 권준 목사
* **찬송** Hymn	"시온성과 같은 교회/성령의 새 바람"
* **축도** Benediction	김학진 목사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심 / Stand if able)